

ACC.9th

열린 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아시아 문화예술 가치 창출...콘텐츠 1천255건 자체 창·제작 융복합 전시·공연 등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 및 대중성 확보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5일 개관 9주년을 맞는다. ACC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개관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조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예술의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ACC는 9년간 누적 방문객 수 1천837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200만명이 다녀갔으며 올해 1-10월 방문객 수는 271만 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방문객 수가 첫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관 이후 총 1천910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중 68%인 1천255건을 자체 창·제작해 동시대 문화예술발전소로서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ACC의 9주년 성과를 소개한다.

◇융복합 콘텐츠로 문화예술 영역 확장

ACC는 아시아 소재와 동시대 담론을 주제로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창의력을 발휘해 다양한 전시를 진행해왔다. 특히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연구 및 실험 등 새로운 시도로 문화예술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를 선보이고자 했다. 올해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연구주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낸 전시 연출방법과 체험형 예술작품이 대중성을 이끌어냈다.

'디어 바비노냐-해항 도시 속 혼란문화'와 '이음지음' 전시가 개관 이후 최초로 각각 관람객 수 2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전시된 '사유정원, 상상너머를 거닐다', '물입미감-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 '원초적 비디오편색' 도 각 10만명 이상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바 있다.

ACC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ACC 미래상' 김아영 작

는 게임 엔진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생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달리버리 댄서의 산: 인버스'라는 대형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ACC의 대표 융복합콘텐츠 축제인 'ACT(Art &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은 올해 9회째를 맞아 전문가 및 대중들에게 새로운 융·복합 형태의 예술을 선사했다.

◇국내 최대 블랙박스 극장서 다양한 공연 선보여
ACC는 국내 최대 블랙박스 극장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공연을 창·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개관 이후 9년간 공연 85편을 창·제작해 ACC 및 국내외 무대에 선보이면서 아시아의 다양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덴마크, 베트남, 홍콩 등 국제협력을 통한 다양한 장르 공연도 선보였으며, 올해는 키르기스 영웅 '미나스' 설화를 기반으로 한 '세메데이' 연극을 키르기스공화국 국립극장과 국제협력으로 창·제작해 공연 제작의 지평을 넓혔다.

또한 ACC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앞두고 지역의 문화 예술가와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의 사연을 담은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제작했고, 레퍼토리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과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을 통해 광주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누구에게나 열린 매력적인 공간
ACC는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미를 갖춘 이색적인 건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는 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ACC 하늘마당은 젊은이들 사이에 각종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입소문이 나 지난해 39만여 명이 찾았다.

아울러 ACC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모든 인공경좌에 동시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일부 전시에 수어해설 투어 영상을 제작, 운영 중이다.

이강현 전담장은 "개관 9주년을 맞은 문화전당은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보다가 가까이, 함께하는 열린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체임버 시리즈 마지막 무대 브람스·드보르작을 만나다

시향, 내달 5일 광주에당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마지막 무대가 다음 달 5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바이올린 강다영·김소연, 비올라 조수영, 첼로 나유빈, 클라리넷 곽지현, 피아노 김동준이 함께한다.

현악 사중주를 비롯해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이번 실내악 연주는 더욱 깊이 있고 섬세한 선율로 관객들과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실내악에서 오중주의 역사를 새로 연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와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 작품으로, 겨울 초입의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는 클라리넷의 맑고 우아한 색채의 이면에 깊은 슬픔을 담은 곡이다. 클라리넷과 현악 사중주의 긴장과 이완 사이 브람스 특유의 아련함이 백미다. 예순을 바라보는 만년의 대가가 빛은 노련미와 완숙미가 함께 묻어나는 작품이다.

두 번째 무대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로 장식한다. 피아노 오중주의 역사를 열었던 슈만과 브람스의 뒤를 잇는 명곡으로 주제별 소재 선택, 개별 악장의 흡입력 데 없는 구조와 민속적인 요소가 특징이다. 이 작품은 드보르작 특유의 서정성이 극대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교적 많은 양의 실내악을 작곡한 그의 작품들 가운데 이날 연주되는 '피아노 5중주 op.81'은 음악적 구성과 풍부한 내용이 있어 단연 돋보이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22> 육십사괘해설 : 64. 화수미제(火水未濟) 上

미제(未濟)와 기제(既濟) 관계	
화수미제	수화기제

역경의 육십사번 제 64괘는 화수미제(火水未濟)다. 기제 다음에 미제를 놓아 만물의 순환의 이치를 따른 것이지만, 기제와 미제와의 관계는 태(泰)와 비(否)의 관계와 같다. 기제가 이미 이뤘다는 것에 대해 미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제는 기제를 뒤집어서 보는 빈괘(貧卦) 또는 종괘(終卦)가 되고 음양을 바꿔놓은 착괘(錯卦), 이괘(巽卦)의 관계가 된다. 특히 미제의 효괘(五卦)에는 기제가 있고 역시 기제의 효괘에는 미제가 내포되어 있어 두개의 괘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미제는 기제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미제괘의 때에는 기제 내괘에 있던 이(離)가 위로 올라가고 외괘에 있던 감(坎)이 아래로 내려와서 염상(炎上)의 화기(火氣)와 침강(沈降)의 수기(水氣)가 서로 교제(交濟)되지 않아 쓸 수가 없고, 효상을 살펴봐도 기제와는 전혀 거꾸로 돼 있어 육효 모두 위치를 잃어서 '미제' (未濟)라는 상의(象意)가 나온 것이다.

화수미제(火水未濟)	未濟 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卦 象
	有孚于飲酒 无咎, 濡其首 有孚失是 貞吉 无悔, 君子之光 有孚 吉	離火求珠之課
	貞吉 悔亡, 震用伐邑 三年有賞于大國 未濟 征凶, 利涉大川	巽光浮海之象
	現其輪, 貞吉	巽中望喜之象
	濡其尾 吝	火落結實之意

미제가 위치를 잃었다는 것은 육효의 위치가 모두 음양이 올바르지 않은 부정(不正)의 효이고 양(陽)이 위치를 잃어 음(陰)이 그 위치를 침범했다는 뜻이며 주재인 군위의 오효가 음효로서 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잡괘전에서는 귀매를 '처녀의 마지막'이라고 해 '여지종야'(女之終也)라 한데 반해, 미제를 '남자의 궁핍'이라 해 '남지궁야'(男之窮也)라 한 것이다.

미제를 기제 다음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서괘전에서는 '만물은 다 끝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제로 이어 받는다'고 해 '물불가궁야'고 수지미미제(物不可窮也故受之以未濟)라고 말했다. 이로써 세상의 만물은 완벽한 것은 없고 때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

“미제 형, 소호흡제 유기미, 무유리”

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십사괘가 다시 돌아가는 순환의 법칙을 밝히고 있다.

미제괘의 상괘와 하괘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중부 이괘(離卦)는 하중부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이 충족되고 안정돼 나름대로 잘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중부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반면에 하중부 감괘는 이음(二陰)이 서로 일양(一陽)을 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다. 그러나 하중부에 무관심한 상중부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제괘'(未濟卦)라고 이름한 것이다.

상괘와 하괘의 화상(畫象)을 보면, 물 속에서 옥구슬을 찾아 불로 연마하는 갈화구주지과(硃火求珠之課)의 모습이고 새벽의 해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영광부해지상(曙光浮海之象)이며, 근심 걱정 속에서 기쁨을 갈망하는 우중망희지상(憂中望喜之象)이고 꽃이 떨어져 결실을 맺는 화락결실지의(花落結實之意)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화수미제(未濟卦)의 과사는 '미제 형, 소호흡제 유기미, 무유리'(未濟 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다. 즉, '이루지 못한 일을 다시 시작하니 신께 기도하라.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다 건너다가 꼬리를 적서 버리니 이로운 바가 없다'는 뜻이다.

새로운 시작은 어렵더 어렵다.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제는 일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때이고 하천을 아직 건너지 않은 것이다. 지금부터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닌데, 크게 나아가서 노력해 일을 이루려고 하니 단사에서 '미제 형'(未濟 亨)이라고 한 것이다. 구이가 응하고 있는 육효는 유중(柔中)의 효를 얻고 있어 '유득중야'(柔得中也)라 했다.

기제와 미제에서는 감수의 상을 여우로 본다. 여우는 물과 친근하고 물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의 여우가 아래 괘에 있으니 작은 여우가 하괘의 물을 건넌데, 다시 삼·사·오효에서 감의 물을 만났으니 이를 중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소호흡제 미출중야'(小狐汔濟未出中也)라 한 것이다.

힘이 약한 작은 여우가 처음에는 강 하나를 건넌데 또 강 하나를 분발해 건너려 하니 그 힘을 지속할 수 없어 꼬리를 적서버렸으니 미제가 기제로 완성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제로 다시 탈출하려고 하는 것도 곤란해 진퇴양난(進退兩難)으로 이로울 데가 조금도 없다. 이를 '유기미 무유리'(濡其尾 无攸利)라고 말할 것이다.

비록 미제괘는 육효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나 모두가 음양상응(陰陽相應)하여 서로 돕고 격려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노력한다면 기제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서 '수불당위 강유응야'(雖不當位 剛柔應也)라 한 것이다.

상전에서는 '물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미제'라고 해 '화제 수상 미제'(火在水上 未濟)라 했다. 상승하는 이(離)가 위에 있고 하강하는 감(坎)이 아래에 있어 활용하는 용(用)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교류 교합하지 못하니 아직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있어야 할 성질의 이화(離火, 남방)와 감수(坎水, 북방)가 있어야 할 장소에 마땅해 물건 구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분수에 맞는 올바른 데에 놓는 다 것은 역시 군자가 분별하여 할 것이라고 해 '군자이신 변물거방'(君子以慎辨物居方)이라고 말했다.

점사에서 서숙을 들어 미제괘를 얻으면 점고의 포인트는 이화와 감수가 아직 교차하지 않았고 육효 모두가 정위(正位)를 잃었으나 서로 응(應)하고 있는 삼양삼음(三陽三陰)의 교역괘라는 점이다. 기제를 본괘에서 얻으면 변괘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 흠여지니 본괘보다는 지괘에서 얻은 것이 좋고, 미제괘는 지괘에서 보다는 본괘에서 얻어 다른 괘로 변하는 것이 좋다.

미제괘를 만나면 지위도 안 좋고 때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으로 미제를 얻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된다.

돈이 있어도 자본으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도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하지 못해 초조하지만 일시적으로 흥분해 움직이지 않고 절제와 끈기로 노력해 나아가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운기, 운세는 처음 어렵고 나중에는 쉬워진다. 지금은 해가 뜨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할 수 있으니 해가 떠오르는 때를 위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근면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소망이나 바람 등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나아가면 이뤄진다. 직업과 직장에서는 아직 적응하지 못해 익숙하지 못하지만 점차 동료들과도 교제를 원만히 해감으로써 호전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지위에 불만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지출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도 어두운 시절을 벗어날 수 있는 날이